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흠손(공구)과 검 [느헤미야 4:15-23]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15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16 그 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9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20 너희가 무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1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22 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찌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23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좇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1, 교회 공격을 방어할 영적 무기들의 필요성

느헤미야는 일꾼들이 잘 무장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은 온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교회공격을 방어하는 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a) 영적무기들은 교회 공격을 방어할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격에 대항해 싸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실제 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선 물리적인 무기들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왕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란 의미는 복음을 말하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선 영적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엔 우리의 영적 무기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b) 영적무기들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던 사람들은 공격이 왔을 때 언제든지 자신의 무기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적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느헤미야가 사용한 중요한 영적무기 중 하나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공격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또한 그런 공격들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꺼내들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 된 본성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비웠는지 바라봅니다.

c) 영적인 무기들은 우리에게 응집된 힘을 주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공격들을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서로서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나팔을 불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공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응집된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곁에서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2, 영적무기들만으로는 교회공격을 방어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훌륭한 주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

다. 그들은 잘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회공격을 방어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127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1). 주님께서 종국적으로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오늘 설교본문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해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인들의 힘에 짓눌려 있을 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0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1:30).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어떤 것을 스스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 분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어떤 것도 그 분의 사랑의 손길에서 우리들을 뿌리칠 수 없도록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흠손(공구)과 검을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